

## 법무매거진



## 신임 법관 121명 중 여성 절반 넘었다

- 여성 법관 63명으로 52%
- 임명장엔 ‘안철상 권한대행’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21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신임 법관은 3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들은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미뤄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안 권한대행은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와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관으로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정 안팎으로 처신과 언행에도 신중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직무와 무관한 법관의 개인적인 활동도 때에 따라서는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법관이 내린 재판의 결론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판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63명(52%)으로 남성(58명, 48%)보다 많았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7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34명)보다 두 배를 훌쩍 넘었다.

평균 연령은 35.4세로 34.9세였던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30세 미만은 1명에 불과했고 30대가 105명, 40대가 15명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검사 13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16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8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하려면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법원의 신뢰 제고와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저작권자/여성신문)